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탈식민주의 — 장소와 언어를 중심으로

박진훈

I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은 아일랜드의 어두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달리 말하면 『초상』은 식민지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인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을 '비유하는 이야기'(national allegory)로 서술한 작품이다. 당시 아일랜드인들은 정치의 편협함과 종교의 구속성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피폐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일랜드인의 모습은 『초상』에서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넙마를 입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에 뜯기는 육체의 삶 속에서 절망의 갑작스런 발작을 느낀 그[스티븐]는 눈을 감았다”(254). 이렇게 육체적으로 궁핍하게 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일랜드인들에 대해 조이스는 실망과 환멸을 느꼈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아일랜드에 대한 환멸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초상』에서 대학교 학감이 가르치려는 영어 단어(tundish 274)를 배척하였고, 『율리시즈』(*Ulysses*)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고리대금업자(gombeenwoman Eliza Tudor, 9. 630)라고 혹평하고 있다. 아울러 식민지 교육을 제국주의의 문화와 우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한 조이스는, 식민지 수탈을 일삼는 영국을 제국주의의 전형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초상』 등에서 제국주의 영국에 대해 식민지

문학의 공개적 반역을 피하고 있다.

조이스의 이러한 '저항적 글쓰기'는 더블린의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는 더블린의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 모순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러한 모순들을 전치(displacement)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주입하는 이미지를 거부하는 조이스의 이런 의도는 그들의 이미지에 오염되지 않은 전혀 다른 모습의 공동체 사회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조이스의 이러한 식민주의 저항 정신은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가 진정한 '자아의 정체성'을 성취하려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다(273).

위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초상』과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의 상관 관계, 그리고 조이스의 저항적 글쓰기가 장소(Dublin)와 언어적인 면(English/english)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이스 시대, 영국사람들은 피지배 계급인 아일랜드인을 영원한 타자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아일랜드의 정치/문화를 파괴하며, 다방면에서 피지배 계급의 실체를 말살시키려고 하였다. 즉 피지배 주체의 말살을 통해 '타자의 새로운 영혼 만들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은 『초상』에서 피지배 계급에 대한 이념적 조작, 이에 맞서는 민족주의자의 투쟁, 그리고 그 와중에서 발생하는 제국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뒤틀린 언술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재현하고 있는 인물들은 주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마비되고 타락해 가는 군상(群像),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으로 일관하는 민족주의자들이다. 특히 종교적 오만 속에서 타락을 일삼는 신부들, 같은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의 편협함으로 절대로 '타자성(the Otherness)'¹⁾을 인정하지 않고 아전투구를 일삼는 아일랜드인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조이스가 다양한 계층들의 타락한 행동들과 언술을 제시하는 것은, 더블린 사회 속에 존재하는 영국의

1) 탈식민주의 문학에서 타자(the Other)는 주로 자신의 피지배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the self)를 단순한 타인과 같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체성(Subjectivity)과 실체(itself; 타자성)를 인정하려는 의도로 쓰이는 용어로, '좋은 타자'는 '긍정적인 정형'(positive stereotype)이 된다(Gilman 20).

‘식민지화의 실체’를 폭로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식민지 현실의 폭로는 식민주의자의 문명화/근대성을 빙자한 역사에 숨어 있는 여러 비극적 요소들—신부와 민족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 모습의 재현과 그들의 양가성적 언술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권력의 남용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조이스는 이러한 더블린의 비극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이름짓기’인 공간적 역사성을 가지고 『초상』을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블린에 대한 새로운 이름짓기는 역사성과 사회적 지속성을 토대로 하여 식민지시대에 말살된 여러 목소리를 복원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말살된 목소리를 복원하여 제국주의적 담론의 ‘중심/주변 이원론’을 해체하려는 조이스는 피식민주체(the colonised subject)의 정치적 대리인이며 동시에 행동자인 스티븐을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그의 이런 시도는 과거와 현재의 식민지 사회 속에 있는 제국주의적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며, 제국주의의 물리적(주도적)이며 담론적(해계모니적)인 현 상황을 전복시키려는 전략에 대한 검토이다. 그래서 식민주의 저항 담론은 제국주의의 ‘만화경 같은 변형’(kaleidoscopic variation)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작업 모델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Brydon 1988 재인용). 이는 또 식민지화를 직접/간접적으로 경험한 지역과 국가들의 문학 작품과 문화적 성격을 비교하는 것이며, 식민지배 세력과의 접촉이 시작된 첫 번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탈식민적인 평가와 주변적 전복은 흔히 ‘재현’과 ‘저항’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식민주의 재현을 통해 탈식민주의를 목표로 하는 텍스트적 저항은 토마스 매콜리(Thomas Macaulay)의 19세기 풍자에서부터 헬렌 티핀(Helen Tiffin)의 반정전적(counter-canonical) 문학 담론까지 포함하고 있다(Ashcroft 85, 95, 117-8).

탈식민주의 비평가 사이먼 듀링(Simon During)은 탈식민주의적 텍스트의 저항성을 유럽중심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정체성을 달성하기 위한 피식민주의 집단의 필요성이라고 정의했다.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당해 온 나라와 단체에서 나타나는 탈식민주의는 포변 주의자나 유럽중심주의의 개념과 이미지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33)

그러나 이 주장은 티핀에 의해 비판받는다. 그는 듀링의 정의가 단순하며 아이러니의 개념을 등한시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본질주의/탈식민주의적 투사는 정체성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티핀의 '정체성 오염'에 대해 린다 허천(Linda Hutcheon)은 탈식민주의가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는데(168), 이 오염은 필연적으로 식민지에 대한 '연루의 복잡성'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비평은, 식민주의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중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어서 일종의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복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식민적 문학은 지배 문화 내부에서 전복하는 아이러니, 알레고리, 자기 반영성 등 식민주의 탈출을 향한 광범위한 비판과 다양한 방법을 공유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 탈식민주의 문학의 전복 가능성은 이중적이거나 분열된 담론으로, 아이러니의 비유적 사용은 전략적이거나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언급한다. 그래서 식민주의 저항문학은 작품에 내재하는 의미론적, 구조적인 이중성 때문에 탈식민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정체성과 역사의 역설적 이중성에 대한 편리한 비유가 되고 있다. 또한 탈식민주의 문학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차별성을 갖는다(Ashcroft 134-37, 141-42).

위의 탈식민주의 정의를 기초로, 피식민지 주체에서 탈출하려는 작가들의 바람직한 글쓰기와 『초상』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보자.

첫째, 탈식민적 글쓰기는 식민지에 저항하는 문화의 '복합적 특성'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침묵/말살하려는 과정이 아닌 상호진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즉 탈식민주의 작가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억압에서도 자신의 복합성이 제국주의적 문화들간의 충돌로부터 어떻게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복합성은 탈식민적 사회에서 작가가 문화적 억압을 의식하는 순간에 생긴다. 또한 정착 제국주의자가 본토인을 새로운 사회적 형태에 동화시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이런 예는 『초상』에서 중학교 교장이 스티븐에게 성직을 권유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166-73). 스티븐에게 편협한 종교적 이데올로기 즉 제국주의적 사회 형태에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교장의 언술은 피식민지인의 복합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성은 식민지 이전과 이후의 문화적 순수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보편적 합의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복합성은 전통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탈식민

적 형태에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대안이나 절대적인 범주는 아니다. 이는 혼합성(creole)이 서로의 상호발전에 기초를 둔 것처럼 복합성의 정도는 문화들간의 상호실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작가는 과거의 이분법적 범주에서 벗어나 문화적 교류와 성장을 향한 새로운 반통일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건설의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Ashcroft 183-34 참고). 그래서 탈식민주의 작가는 서로 다른 잡종적 시학, 즉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념적 대결에 기반을 두고 작품을 써야 한다.

둘째,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교묘한 주입을 전복시켜야 한다.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작가는, 텍스트의 표면에서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보다는 내부에 나타나는 서로 모순된 ‘감정의 구조들’을 읽는 수단, 즉 특정 시기의 과도기적 성격과 변화하는 기호들을 찾아내는 수단으로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Eagleton 832-34). 이는 제국주의의 문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주입을 철저히 비판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초상』에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더블린의 특권층들(특히 신부)은 자신의 종교관과 윤리관, 그리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타자들에게 주입시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굴종의 소속감/복종심을 형성해 나간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정신세계보다 물질적 풍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엄격한 가부장제나 사회활동의 제한 등의 장치들에 의해 합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조이스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주입에 정면으로 반발한다. 그는 스티븐을 통해 더블린을 지배하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있다: “— 아무런 속박 없는 자유 속에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생활이나 예술 양식을 발견하겠다는 것이 너 [스티븐]의 정신이란 걸 나[크렌리]는 기억해”(267). 이러한 이데올로기 타파 작업에 대해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중심화된’ 제국주의적 구조의 개념에 대해 해체적 분석을 한다. 그는 “양피지 위에 하얀 잉크로 그려진 그림 밑에 숨어있는, 용암처럼 이글거리며 분출의 기회를 노리는 서로 모순된 이데올로기를 폭로해야 한다”(11)고 강조한다. 『초상』에서 이데올로기 주입에 대한 전복은 아널(Arnall) 신부의 수학 시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8-9). 학생들을 두 편—아일랜드와 영국에 특권적 존재로 나타나는 요크가(하얀 장미)와 랭커스터가(붉은 장미)—으로 나뉘 수학문제를 풀게 하는 신부의 제국주의적 전략에 맞서, 스티븐은 파란 장미(green rose)가 세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탈식민주의 문학은 작품을 읽는 독자의 태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식민주의 저항 담론에 대한 독자의 태도에 대해, 마쉴레이(Pierre Macherey)는 문학적 담론에 숨어 있는 작가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탐구력을 강조하고 있다(87). 사이드(Edward Said) 역시 작품 속에 숨겨져 있거나 암시적으로 묘사돼 있는, 즉 이념적으로 재현되어 있는 것들을 추출해 내고 잘 해석하여, 작가가 강조하려는 목소리(주제)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78)고 하면서 독자의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

위의 이론들에 근거할 때, 식민지 시대의 작가는 피식민지 주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유용한 과거'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작가는 또한 식민지 상황을 거부하는 '토로할 수 있는 말'(the usable tongue)을 찾아야 하는 심리적 책임감이 있다(Ashcroft 168). 이런 관점에서, 조이스는 『초상』에서 돌란(Dolan) 신부의 부당한 매질에 대해 교장에게 항의하는 스티븐의 저항적 언술을 보여줌으로써(58-59), 말라버린 목초지나 갈대 같은 더블린이란 공간에 소량이지만 빠른 물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즉 조이스는 스티븐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이미지를 전복하려는 '식민주의 저항'의 작가적 사명감에 충실한 작가였다. 이러한 조이스의 탈식민적 글쓰기는 티핀의 다음 주장에 부합한다.

... 식민지 작가의 글쓰기는 특권적 위치에 있었던 유럽 중심적 담화와 전술을 서술을 통해 그들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 부가하고 포함했던 코드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탈식민지화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 식민지 작가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은 유럽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서 허구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식민지의 역사를 새롭게 읽고 다시 쓰는 작업이다. (95-97)

이런 연유로 조이스에게 조국 아일랜드는 미화(美化)와 우상의 대상이 아닌, 예술가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정적인 개념이었다. 그는 조국을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는 늙은 암돼지”(220)라고 정의하며 자신을 억누르는 모든 억압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였다. 그래서 신부(종교)의 모습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 했던 스티븐은 그들을 단지 제국주의의 불완전한 모방자로 규정한다. 신부를 존경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타파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바바(Homi Bhabha)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매우 적절하다.

· · · [홍내내는 사람: 신부들의] 감시의 눈초리가 훈련받는 사람[스티븐]의 전치되는 용사로 [신부들에게] 되돌아온다. 그 곳에서 관찰자는 관찰당하는 자가 되고 [제국주의자의] ‘부분적’ 재현은 모든 정체성의 개념을 다시 언술하게 되며 본질로부터 그것을 소외시키게 된다. (89)

스티븐은 학생을 감독하는 신부들을 대상으로, 역으로 관찰자가 되어 그들을 관찰한다(113). 그 결과 그들은 제국주의/민족주의의 정체성이 지니는 본질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언술’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신부들의 타락한 모습에서 종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진정한 예술 추구’를 통해 이러한 식민지의 중심(Church)을 전복하려고 한다. 마침내 스티븐은 현재의 제국주의적인 상황에서 독립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친구 데이빈(Davin)이 예수회 신부를 “신부님”(father)이라고 불렀으나 스티븐은 “선생님”(sir)이라고 부르며, 신부를 “속물”로 단정짓는다(206).

이렇게 반항적인 스티븐이 느끼는 암울한 요소들은 기존의 방법과 다른 새로운 리얼리티로 표현되고 있다. 즉 조이스는 제국주의자의 부패와 타락상을 리얼리티에 입각하여 잘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더블린의 건설’을 향한 작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작가의 의지가 여러 형태의 식민주의를 벗어나려는 조이스의 탈식민주의 정신이다. 이 정신을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작가가 미적 변용을 통해... 경직된 사회적 리얼리티를 깨뜨리고 변혁의 자유를 여는... 개인의 내적 역사를 성취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42-43). 이는 탈식민지화를 추구하는 식민지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현상이 아닌 작가 스스로 ‘새롭게 발견한 리얼리티’를 의미한다: “리얼리티 그 자체보다도 더 사실적인 가공의 세계를 창조하여, 권력(제국주의)의 종말과 자유의 출현(Schein)에 대한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작가가 할 일이다”(48-49). 티핀도 식민지 저항 담론을 위해 작가는 식민주의적인 얼룩에서 탈피하여 유럽의 코드에 대한 급진적 해체를 포함하는 새롭고 자유로운 ‘리얼리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5).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티핀이 주장하는 리얼리티는 문학텍스트 상의 ‘전복적인 책략’(subversive manoeuvres)이다. 이는 피식민자가 지배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국주의자의 편견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다.

이러한 티핀의 전복적인 책략은 『초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를 들면 스티븐이 조상(아버지)을 욕하는 장면은 식민주의 저항 담론의

전복적인 책략의 전형을 나타낸다: “—나의 조상들은 자기네 언어(Gaelic)를 내 던지고 다른 나라 언어(English)를 택했어, 스티븐이 말했다. 그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을 굴복시키도록 내버려두었어”(220). 이와 같이 스티븐의 육체와 정신의 주변에는 조상의 흔적들이 화석화된 정체성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스티븐은 야수적이며 편견적 성향의 제국주의적/민족주의적 화석의 오염된 정체성에서 탈출을 결행하려고 한다. 그의 행동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에 대한 통찰력을 얻은 후 확연히 달라진다. 즉 개인의 자유의지로 자아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생활이나 예술 양식을 발견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탈출을 꿈꾸던 스티븐은 해안가에서 비둘기같은 소녀에게 에피파니를 느끼며(185-86), 마침내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순수의 자연 상태’(naturalisation)에 도달한다.

III

식민지 작가가 공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역사의 부재’나 ‘성취부재’와 같은 잘못된 신화를 부수는 작업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으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을 역사적으로 재진술할 때, 작가는 역사적 객관성의 통념을 배제하고 역사가 내포하는 이질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주어진 공간에서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시간/공간적 투쟁과 소외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탈식민적 사회를 꿈꾸는 스티븐은 역사적 발전이라는 제국주의적 메시지를 거부하면서부터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Ashcroft 355-57 참고).

『초상』에서 스티븐은 안개 속에 엮여 있는 ‘더블린의 공간성’을 계속적으로 응시한다. 그는 더블린을 기독교국의 제 7도시와 같은 복구인의 식민시대에서 오는 ‘권태와 굴종의 도시’라고 단호하게 비판한다(181). 이러한 외형적 모습에 덧붙여 더블린의 도덕/물질적 부패상황을 “흐리고 연푸른 빛의 축 늘어진 천과 같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243) “회색의 아침 햇살”(190)로 전치해 놓았다. 이와 같은 도시에서 스티븐은 자아 정체성을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 그의 정신적 갈등은 ‘이리저리’(hither and thither)라는 단어가 자주(9번: 119,

148-49, 174, 186, 244) 나오는 것에서 충분히 짐작된다. 이와 같은 출구 없는 방향은 여러 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스티븐이 대학교에 들어간 아버지와 가정교사를 기다리다, 바이런(Byron) 주점과 클론타프(Clontarf)를 왔다 갔다하는 장면이다(178). 종교와 민족주의를 뜻하는 ‘클론타프 채플’ 그리고 자유와 예술의 상징인 ‘바이런 주점’, 그 사이에서 그는 서성거리고 있다.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종교와 자아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예술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내면의 갈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조이스가 더블린사람들의 모순/갈등의 어두운 현실을 묘사하며 과거에 몰두하는 것은, 억압된 상황에서의 탈출을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는 희망의 토대로 삼아 희망찬 미래를 열려는 의도에서이다. 결국 스티븐은 “민족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버리기 위해”(276) 파리로 탈출하게 된다. 왜냐하면 스티븐에게 더블린은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암울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스티븐은 더블린을 빈민가를 방불케 하는 추하고 더러운 ‘마비지대’(106)로 단정하고, 암울한 현실을 “이 냄새나는 똥무더기 세상”(263)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스티븐에게 더블린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허상인 안개로 뒤덮인 도시이며, 성숙하지 못한 유년의 땅일 뿐이다. 이러한 스티븐과 더블린과의 괴리감은 스티븐이 자신의 친구들을 묘사하는 데서도 충분히 느껴진다: “난쟁이”(248), “똥떨막한 사나이, 키 큰 폐병환자 학생”(255), “그(Cranly)는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270), “살랭이 눈을 한 린치”(272).

스티븐의 더블린에 대한 차가운 인식은 당연히 주변사람들과 사회적 거리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키가 크고 점잖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된다(77). 그의 소외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친구들: 해런, 맥켄, 템플, 데이빈 등, 그리고 부모 등등)이 스티븐을 묘사하는 태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① 건방진 녀석(impudent thief 75), ② 고상한 디덜러스(noble Dedalus! 79), ③ 믿음직한 친구(trusty friend! 79), ④ 약은 녀석(sly dog 80), ⑤ 반사회적 존재(antisocial being 191), ⑥ 진보적 성향자(progressive tendency 212), ⑦ 이상주의자(idealist 212), ⑧ 반동(reactionary 214), ⑨ 시인 나부랭이(Minor poets 214), ⑩ 모든 종교에서 독립한 사람(man independent of all religions 215), ⑪ 지적인 괴짜(intellectual crankery 215), ⑫ 독자적인 정신을 가진 유일한 인간(the only man in this institution that has an individual mind 217),

⑬ 지독한 인간, 항상 혼자인 자(a terrible man, Always alone 218), ⑭ 타고난 냉소자(born sneer 218), ⑮ 마음속으로는 아일랜드인이자 자존심이 매우 강한 자(In your heart you are an Irishman but your pride is too powerful 220), ⑯ 시인이나 신비론자(poet or mystic 220), ⑰ 흥분 잘하는 경질 녀석(excitable bloody man 260), ⑱ 가련한 시인(poor poet 269), ⑲ 초조한 마음을 가진 자(restless mind 271).

< ①은 관구장, ②~④는 헤런, ⑤~⑩은 맥켄, ⑪은 맥엘리스터, ⑫는 템플, ⑬~⑯은 데이빈, ⑰~⑱은 크랜리, ⑲는 스티븐의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스티븐을 평가한 말임. >

친구 헤런의 표현은 스티븐을 비꼬는 말이다. 또한 종교적으로 높은 신분의 관구장은 그를 건방진 녀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사람들이 스티븐을 배척하자 그의 고독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곧 '소외감'으로 대표되는 주변화(marginalisation)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더블린 세월의 덧없음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더블린사람들에게서 싸늘한 슬픔을 느낀다(269). 마침내 스티븐은 외로움과 쫓겨나는 것, 앞으로 범하게 될 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범세계주의적 정신을 추구한다.

이렇게 더블린의 현존하는 역사를 부인하는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역사는 내가 깨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악몽이다”(Ashcroft 370 재인용). 조이스가 조국의 역사를 악몽으로 칭할 만큼 아일랜드는 ‘올바른 역사 부재’의 혼탁한 공간이었다. 또한, 조이스의 더블린에 대한 관점에서 알 수 있듯, 어떤 곳이 ‘단순히 거기에’ 있다는 것은 공간적 개념을 소유하지 못한 지명(地名)일뿐 장소가 아니다. 공간적 개념에 대해 폴 카터(Paul Carter)는 공간을 혼돈 속에서 질서 출현이라는 역사적 주제를 연기하는 무대로 보고, 현실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통한 ‘공간적인 역사’ 개념을 주장한다. 이를 『초상』에 나타난 조이스의 역사관에 접목하면, 조이스는 제국주의적 역사가 남긴 더블린의 공백을 발견, 탐험하는 과정에서 더블린의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조이스같은 작가들은 복잡성을 지닌 존재다. 여기서 작가가 복잡성을 떠나는 것은 모순적인 현 상황 즉 식민지에 대한 ‘역사적 자리 매김’의 압력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질문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위치(장소)로서의 복잡성은 식민지 작가들에게 새롭게 역사적

으로 자리 매김 하는데 있어 매우 취약한 부분이다. 그들은 이미 두 세계에 개방되어 있으며, 그들의 작품은 한 국가 및 국제적인 정치·문화적 체제의 내부에서 혼성적으로 구성되기 쉽다. 그러나 조이스의 혼종성은 아일랜드의 잡종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블린의 잡종적이며 내재되어 있는 제국주의/민족주의적인 요소들의 이중성을 확실하게 간파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탈식민지 작가에게 ‘공간’은 연속적인 역사적 기명(inscriptions)이 반복해서 덮어쓴 양피지이다. 『초상』의 더블린 또한 제국주의에 의해 쓰여진 것들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쓰기 위한 양피지의 사본이었다. 또한 작가가 서술하는 공간적 역사는 특정한 연도나 장소가 아니라 ‘새롭게 이름짓는’ 행위에서 시작된다. 바로 이때부터 공간은 상징적인 장소, 곧 역사를 가진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블린과 같은 공간부재(spacelessness)의 장소에 대해, 새롭게 단어들을 재평가하여 사전적 단어가 아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 주체의 주관성을 투사하는 것(naming)이 탈식민주의 작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공간에 대한 정의를 데니스 리(Dennis Lee)는 “작가의 억양 낮추기”(‘cadence’)라고 명명하였고, 새로운 의미가 터져 나올 듯한 압력을 느낀다고 했다. 이와 같은 공간의 새로운 이름짓기는 특정한 지역의 과거를 재평가하면서 식민지배 역사의 억압적인 무게를 풍자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이다(Ashcroft 375-79, 401 참고).

위의 맥락에서 볼 때 조이스가 더블린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관점은 탈식민주의 작가들의 태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이스는 더블린 사회의 절대성과 이성의 가면에 가려진 틈새를 파헤치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양면성을 폭로하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작가는 식민사회에 드러난 가정·종교·정치에서 왜곡된 통일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더블린의 군상은 항상 불안하고 서로가 인지할 수 있는 문화/정치적 공감대가 결핍되어 있다. 더블린에 대한 파멸적 상황 묘사는 아일랜드인의 민족성이나 사회적 특징에서가 아니라 영국 식민주의에서 야기된 이 사회의 파멸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식민주의의 파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이스는 개인적 자아 추구라는 이상이 사멸된 더블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더블린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stagnancy)은 뒤튼린 역사의 질곡 속에서 자신의 참된 역사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더블린을 이상적인 세계

가 상실된 살기 어려운 사회(dystopian)로 단정하고, 이를 더블린의 가정과 종교 및 정치에 대해 비판하기 위한 '역사의 장'으로 사용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바흐틴의 "사실이나 실존하는 현실을 발전시키는 특정한 장소"(39)가 조이스가 서술하고 있는 더블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더블린은 언어·역사 그리고 실생활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전치될 수 있다. 즉 식민지화로 굴절된 역사를 지닌 더블린과 외부에서 도입된 제국주의의 언어로 인해, 장소와 언어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결여된 도시가 바로 더블린이다. 그래서 더블린사람들은 당연히 경험으로 인지되는 삶의 공간인 주변 환경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사이에서 '부적절한 전이'의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언어의 부적절한 전이를 로버트 크로에취(Robert Kroetsch)는 외형과 순정성(authenticity) 사이의 긴장상태로 파악하였다(Ashcroft 391-94).

조이스는 더블린의 '올바른 역사의 공간 부재' 속에서 겪게되는 부적절한 전이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블린사람들에 대한 반항으로 침묵과 유랑, 그리고 간지(silence, exile, and cunning)의 방법을 택한다(268-69). 그의 반항은 아일랜드의 순정성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의 왜곡된 체제를 해체(uninvent)하여 더블린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해결의 한 방법으로 조이스는 아일랜드인이 고수하려는 과거 예찬적 성향을 거부하는 탈신화의 급진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스티븐이 이카루스(Icarus)적 탈출을 꿈꾸는 불사조 같이 진정한 자아의 정체성을 찾으려 투쟁하는 언행이 바로 탈신화의 과정인 셈이다. 이는 스티븐이 더블린이라는 글자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권태와 소음 그리고 나태"의 도시 더블린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했다(191)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조이스의 이런 의도는 제국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상대에 대한 타자성을 말살하려는 더블린의 과거를 해체하려는 것이다. 그의 더블린 해체 작업은 더블린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역사적 진실성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최종목표는 더블린을 새로운 상상적 공동체로 재창조(new naming)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이스가 묘사하고 있는 '더블린의 탈승화(desublimation) 작업'은 작가와 독자 모두의 자발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발성은 급진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려 깊은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더블린을 역사적으로 새롭게 이름짓는 재창조가 가능하다.

아일랜드의 진정한 역사가 없는 더블린을 재창조하기 위해, 조이스는 『초상』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언어적 저항을 시도한다.

IV

조이스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시절(16세)부터 이탈리아, 불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고 노르웨이어 등을 공부하는 데 대단한 열성을 보였다. 이러한 학문적 열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구사력은 『초상』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Ivory, ivoire, avorio, ebur* 193). 그는 또 단테, 브루노(Bruno), 플로베르, 하우프트만(Hauptmann) 등의 작품을 탐독하였다(Ellmann 74 참고). 여러 작가의 작품을 읽고 이들의 사상을 섭렵한 조이스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에 심취하였으며 셸리, 콜리지, 와일드 등의 견해를 종합하여 자신의 미학 이론을 수립한다. 『초상』의 5장에 잘 나타나 있는 조이스의 미학이론(200-06)은 그의 철학적 사고력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조이스의 언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율리시즈』 및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서도 그의 탁월한 언어 감각이 잘 나타나 있다.

국가(nation)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國歌)처럼, 언어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 요소다. 이러한 언어의 절대적 역할을 잘 간파한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과정에서 항상 자국어의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언어적 우월성과 언어적 침탈 행위는 어떤 문화적 침략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에 의한 식민지 정책의 파장은 영구적이라고 할 만큼 그 영향/여파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들은 언어를 통한 문화이식으로 피식민 주체에게 문화의 동질성을 강요하였으며 특히 문학을 통하여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쉽게 보급하였다.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문학이 심화시킨다’는 사실에 대해,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피식민적 상황에서도 문학(언어)은 사회 생활에서의 이념과 이념적 장치의 기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72). 그는 문학을 권력에 봉사하는 이념적 장치들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알튀세르는 “[식민지에서] 존재하는 실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상상적

관계 [속에서 제국주의]를 재현”(162)한 것이 문학인만큼, 피지배 주체인 식민지 작가는 지배 주체(통치 계층)의 권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비춰볼 때 조이스와 같은 탈식민주의 작가는 문학의 출발점을 자신의 작품이 갖는 ‘언어의 유용성’ 고찰에서 삼게 된다. 즉 피지배 주체인 작가가 제국주의의 식민적 언어의 권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념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피식민 주체 작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언어 침략에 맞서는 대응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탈식민화 과정에서 피식민지 작가에게 특히 부각되는 것은 제국주의의 언어에 대한 거부와 전복이다. 이러한 거부와 전복의 도구로 토속적인 모국어(를) 고집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케냐의 소설가 은구기(Ngugi wa Thiong'o)가 있다. 은구기는 “총알이 육체 전복의 수단이었다면 제국주의의 언어는 식민지인의 정신 전복의 수단이었다”고 제국주의 언어를 비판하였다. 그는 한 민족의 사상과 감정은 반드시 그 민족 특유의 토속 언어로만 담아낼 수 있으며, 토착어만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영어로 글쓰기를 거부하였다(김의락 287-88, Ashcroft 285-90 참고). 자국 언어의 순정성을 강조하는 데니스 리 역시 작가가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글쓰는 행위를 이적행위로 보고, 이는 뿌리를 가진 인간 존재를 사멸시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다(Ashcroft 372).

이들의 주장처럼, 제국주의 언어로 글쓰는 작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착취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식민지 상황에서 제국주의 언어(주로 영어)는 식민화된 장소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역할을 인정하는 카취루(Braj Kachru)는 영어가 식민지 인도의 대립하는 언어 집단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으며, 인도 문학에서 ‘타자’(alien)의 언어인 영어로 인도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더 나아가 라오(Raja Rao)는 식민 지배 언어를 해당 지역의 필요에 맞도록 변형하려는 탈식민적 작가의 도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라오는 인도 작가의 영어 사용에 대해 “지적인 치장의 언어일 뿐 정서적 치장은 아니며 이상적인 작가는 영어의 표현 속에 자국민들의 삶의 리듬(tempo)을 주입하는 작가”라고 하며 제국주의 언어의 변형을 주장한다. 그것이 ‘표준 언어’(영어)가 가진 정치적 권력에 대한 훨씬 더 교묘한 거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Ashcroft 283-84,

291-96). 라오식의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조이스의 여러 작품들은 식민주의 저항작가의 언어적 관점에서도 주목받는 소설들이다.

조이스는 『초상』에서 모국어인 게일어를 ‘죽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193). 이는 조이스가 제국주의 언어의 영향력을 이미 간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가 영어로 작품을 쓴 것을 영국에 대한 언어적 굴종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는 영어를 통해 영국의 식민주의적 권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 이상의 반항적인 글쓰기를 모색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스티븐의 진정한 ‘자아 정체성 확립 과정’ 속에서, 스스로 창출해낸 언어를 토대로 항거하는 글쓰기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이스는 언어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는 게일어로 작품을 쓰면 유럽문화를 배척하고 자국의 토착문화와 전통만 고집하는 작가로 남을 것이고, 영어로 쓴다면 자국의 문화가 없는 공허한 모방주의자로 낙인찍힐 상황에 처해있었다. 조국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조이스는 영어로 작품을 썼다.

그러나 급진적인 예술관을 갖고 영어로 작품을 썼다고 해서 조이스를 제국주의에 편입된 작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의 ‘영어로 글쓰기’는 오히려 제국주의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조이스의 언어는 암울한 아일랜드의 현실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자유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Schöner Schein)를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물을 응시한다(gaze)는 단어를 조이스는 서른 한 번(63 · 70 · 74 · 75 · 91 · 102 · 103 · 107 · 113 · 119 · 120 · 124 · 135 · 185-88 · 193 · 243-47 · 249)이나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응시’의 개념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한 단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한 것은 ‘언어의 다의성 창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한 단어의 다의성에서, 조이스의 아일랜드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반추할 수 있다. 즉 조이스의 글쓰기는 지배적인 사회제도의 합리성이라고 치부되는 진부한 감수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성과 감수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 있다(74). 그러므로 조이스의 『초상』은 영국의 언어를 능가하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과 활기가 넘치는 영어(new English)로 쓰여진 작품이다. 그는 “새로운 술어”를 창조함으로써 제국주의 언어를 거부하며 전복한 것이다. 즉 개개의 단어와 포괄적 언어표현의 구체적 특성을 통하여, 현실의 왜곡된 본

질을 드러내고 있다. 조이스는 단어의 다의성을 통해 제국주의 언어의 아집과 편협함을 고발하고 붕괴시키면서 언어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조이스의 저항적 글쓰기가 『초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영어 이외에 매우 다양한 언어 —라틴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아일랜드어, 영국 민요(*Turpin Hero*), 속어, 비어, 고어, 조어 등—를 사용한 점이다. 다국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언어의 기표와 기의 면에서도 그의 의식이 언어를 통한 영국의 식민화 의도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의미의 다양한 어휘 사용(*car · wagonette · jingle · hansom · lorry · dray* 37 · 93 · 222 · 226, *prate · prattle* 233 · 235, *mannikin · dwarf* 248)을 기반으로 하여, 조이스는 언어를 스스로 창출하기도 했다(방언의 조어; *poxfouled* 253 등). 『초상』의 언어적 형식에서, 가장 탁월한 합성어와 신조어들은 거의 나쁜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조이스가 영어에 대해 품고 있는 반발심과 반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① 고어: 궁둥이(*breech* 영국 고어 45), 태평스런(*easeful* 70), 정말로(*by Jove* 영국 고어 81), ...있다(*doth* 118), 의복(*vesture* 183), 유장같이 창백한(*whypale* 209), 또한(*eke* 221 · 259), 머무르다(*tarry* 234), 작부(*wench* 253)

② 비어: 슬쩍했다(*fucked* 40), 경칠(*yellow* 221), 불알(*ballocks* 251), 엉덩이(*arse* 257)

③ 속어: 찰싹 때리기(*belt* 5), 밥통(*breadbasket* 11), 장난(*cod* 13 · 19 · 43), 정말이야(*bedad* 26 · 96 · 100), 최고품(*Ally Daly* 더블린 속어 28), 정말 기가 막혀서(*O Johnny* 32), 잘 알지도 못하면서(*A fat lot* 40), 동성연애(*Smuggling* 아일랜드 속어 42), 불기작(*burn* 45), 나쁜 성질(*wax* 46 · 48), 아주 좋아(*All serene* 62), 매를 맞다(*send ~ up* 76), 찢진(*ripping(ly)* 영국 속어 79 · 81), 정말로(*bloody* 97 · 256 · 260), 낙채시키다(*pluck* 228), 공부만 들이 파다(*stew* 234), 방귀를 뀌다(*fart* 250), 저질(*stinkpot* 250)

④ 아일랜드어: 동성연애(*smuggling* 42), 공을 지키는(*mindng cool*(=*cúl*) 196), 페니언회원(*fianna* =*warriors* 218)

⑤ 조어: 썩기 풀썩(*nuttlebunches* 148), 변색된 종지로 된(*foxpapered* 164), 세 갈래의(*triplebranching* 179), 허연 시체(*corpsewhite* 182), 지하실의 침침함(*cellerdamp* 192), 밤의 그림자(*nightshade* 193), 아무튼(*least-ways* 197), 가장 자리 방울장식이 달린(*bellbordered* 200), 인간 타락 이전(*supralapsarian* 204), 꼬짜(*crankery* 215), 불쾌감(*illhumour* 226), 본체(*whatness* 231), 시너

(scullerymaid 239), 풍만한 사지(lavishlimbed 242), 주먹코의(bottlenosed 244),
그러한 것(thusness 256),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soursmelling 268), 악한 눈
(rouge'seye 271) . . .

조이스가 창출해낸 이러한 언어적 변이들은, 하나의 혹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심리적 갈등이 묘사되는 ‘싸움터’ 같은 작품 속에서 새로운 술어로 탄생된다. 그래서 그의 영어 단어에 대한 ‘새로운 이름짓기’는 변별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새로운 술어로 탄생한 단어들은 제국주의 언어를 전복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전복 의도’는 스티븐이 영국 문학을 비방하고(219), 영어의 비어나 속어 등을 거침없이 쓰는 것에서 읽힐 수 있다. 또한 스티븐은 조국의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종한 영국인(대학교 학감)을 “미친한 추종자”이며 “가련한 영국인”(204)으로 단정하고 여러 면에서 경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학감]의 육체는 주님을 섬기는 저속한 일... 로 늙어 버렸고 성인이나 고승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지니지 못한 채 살아왔었다. (200)

그의 예의바른 태도는 다소 거짓인 듯 들렸고, 스티븐은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나이든 형이 탕자에게 하듯 똑같은 눈초리로 이 영국의 개종자[학감]를 쳐다보았다. (204)

저주받을 학감 그리고 그가 말하는 퍼널(funnel)이라는 단어! 그는 왜 여기 와서 자기네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 아무튼 이래저래 그는 저주받아 마땅해! (274)

둘째, 피식민지인의 어두운 삶을 서술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중심에 서있는 권력자들의 글쓰는 방식에 정면으로 저항하였다. 또한 조이스가 영어로 글을 쓰면서 저항적 서술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읽고 정치·문화적으로 각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조이스의 이런 의도는 최근의 탈식민지 작가 대부분이 영연방 문학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언어로 작품을 쓰는 의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탈식민주의 작가가 제국주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영어로 글을 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모국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순정성을 유지하려는 태도이다.

순정성은 제국주의의 변두리로 내쫓긴 사람들이 겪는 수난이 [제국주의의]

중심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경험의 범주 속에서 인정받게 된다. (Ashcroft *et al.* 1989, 91)

조이스는 파괴되고 있는 아일랜드 민요와 문화를 상술하면서, 현 식민지 생활의 고달픈 실상을 영어로 폭로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 지식 인층에게 제국주의의 왜곡된 현실을 직면하게 하여, 영국 작가들에게도 제국주의의 진상을 알리는 작품들을 쓰도록 유도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황폐해진 역사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국계 아일랜드인 (Anglo-Irish) 작가들의 잘못된 관점을 증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셋째, 식민지 언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조이스가 당시 식민지 상황의 영어를 대문자 영어(English)와 소문자 영어(english)로 엄밀히 구별하여 썼다는 것이다. 대문자 영어는 영국에서 쓰는 표준 영어이고, 조이스가 사용한 소문자 영어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와 통치를 겪은 여러 나라에서 쓰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다. 대문자 영어는 제국의 중심 언어이지만, 소문자 영어는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의 언어일 뿐이다. 즉 피식민지 소문자 영어는 영국 식민주의의 지배와 통치를 받은 흔적이 짙게 묻어 있는 고통과 절망의 언어다(Ashcroft *et al.* 1989, 38-51).

이러한 ‘한 단어의 문자화’는 곧 새로운 의미와 권위를 성취하는 것이다. 또한 탈식민주의를 추구하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가 지니는 혼합성과 주변성은, 그 언어와 의미가 상호 구성되는 사회적 구조뿐만 아니라 ‘상황적 완성’(situated accomplishment)이라는 담론적 현장을 형성하게 된다(Ashcroft 298-300 참고). 그래서 독자는 다양한 문화적 사실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빗 카이른즈(David Cairns)와 숀 리차즈(Shaun Richards)는 이에 대한 예로 “나의 조국은 무엇인가?”에서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를 분석한다. 이 비평가들은 아일랜드인들이 영어를 쓰는 것은 그들이 영국의 더 큰 권력 안에서 통합되었다는 증거지만, 그들은 영국과의 연합에 있어 예측적인 지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 표준형태(영국 영어)로부터 상당히 이탈한 영어를 써야만 했다고 논증하고 있다. 이 논증은 제국주의자들의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일랜드사람들이 자신의 대체(alternative) 언어와 문화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 표현이야말로 영국인과 아일랜드인 사이에 영어의 표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질성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Ashcroft 178-80). 이러한 상이한 언어(대문자/소문자 영어)의 사용은 『초상』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로마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미사(Mass; mass 15 · 19 · 29 · 34 · 47 · 155), 카푸친회 수도사(Capuchin; capuchin 153 · 167), 예수회의 수사(Jesuit; jesuit 49 · 73-74 · 76 · 175 · 219), 예수의 수난(the Passion; passion 266) 등. 이 중에서 피식민지 변방의 언어인 소문자 영어(passion)는 의미가 ‘정열’이지만, 식민주의의 대문자 영어(the Passion)는 ‘예수의 수난’을 뜻한다. 이처럼 피식민지 주체의 언어는 변방의 언어로밖에 인정받을 수 없는 언어적 한계성과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다.

넷째,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작가로서 조이스는 예술 작품의 상품화/국제화라는 측면에서 출판산업의 경제성을 도외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작품이 읽히기 위해서는 출판시장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시장의 형성에서 소위 선진국들은 지식 분배방식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이는 탈식민지 작가들의 모국어 사용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이런 현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34개 산업국가 중에서, 단지 30퍼센트의 선진 자본주의 출판업자들이 세계 서적의 81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작가들의 지적 생산성과 독립성 문제가 작품의 출판과 판매 면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정이다(Baker and Escarpit 1973: 16 재인용). 제 3세계 국가들의 높은 문맹률 · 낮은 구매력 · 다양한 언어 등으로 인한 내부 시장의 규모가 작은 것도 출판산업의 빈약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초상』이 1916년에 미국의 출판업자에 의해 출판되었다는 것은 식민주의 작가가 겪는 출판의 어려움을 단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관점들에서 볼 때, 조이스는 『초상』에서 언어의 다양한 뒤틀림을 시도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문화적 정복에 대해 저항/전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새로운 술어들을 창조한 것은 스티븐의 언술을 통해 반식민주의자의 유형을 제시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진다. 제국주의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새로운 어휘의 창출을 통한 저항의식은, 식민주의 관계와 제국주의적 관계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반담론(counter-discourse)으로 전복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이스는 단순히 영국 전통으로서의 정전(canonical text)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는 정전적 텍스트가 지배했던 언어적 횡포를 탈식민적 입장에서 “영어로 된 담론 세계의 전체 영역”으로 새롭게 쓰려는 시도

를 한 것이다. 이는 스티븐 슬레먼(Stephen Slemon 1988b)이 “문학적 알레고리는 반(反)식민주의 혹은 탈식민적 담화의 특권적 자리를 제시한다”고 한 것처럼 문학텍스트 속에서 알레고리의 형태로 존재한다(Ashcroft 97).

이를 종합하면 조이스가 영어로 글을 발표한 것은 조어·합성어를 비롯한 새로운 영어 쓰기를 통하여 식민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전복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주변 유럽의 독자를 더 많이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횡포와 그릇된 우월감에 대해 각성케 하려는 의도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아울러 언어의 기본적 속성인 영구성과 출판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결국 식민주의 저항 담론에서 언어의 문제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며 문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다양한 면들을 고려할 때, 조이스가 영어로 작품을 쓴 행위는 탈식민적 작가의 복합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반항하는 조이스의 글쓰기는 식민지의 순정성을 지닌 지속적 지연으로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작가의 이런 자세가, 영국에 의해 아일랜드의 문화가 말살되는 황폐한 상황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자국의 문학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V

『초상』에서 조이스는 스티븐을 통해 제국주의의 전복을 꾀하고 있다: “나는 모든 종교에서 독립한 사람의 정신에 감탄하고 있다”(215). 그의 투쟁의식은 ‘도덕적 통찰력, 사회적 자각, 자아-완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의 투쟁은 무력투쟁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 찾기이다. 이를 위해 조이스는 개인의 자아가 말살 당하고 복종과 엄격한 서열 속에 폭력이 정당화되는, 정형적인 식민지(더블린)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그는 다양한 언어적 아이러니를 함축하여 더블린의 참담한 모습을 서술하면서 식민지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했다.

이러한 조이스의 더블린에 대한 새로운 역사 쓰기는 스티븐의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부모, 교회(성직자),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통해 개인의 개성과 정신을 속박하고 노예화시키려는 전통과 권위에 대해 도전한다. 스티븐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뒤

틀리고 오만한 사람들과 투쟁을 통해, 혹은 침묵하면서 자신을 속박하려는 위선적인 것들을 배척하였다. 그가 추구하는 세계는 각자가 확실한 주체의식을 갖고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공식적 통제가 없고 개인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상상적인 공동체이다. 즉 제국주의적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순정성이 없는 ‘역사적 공간 부재’의 더블린을 해체하여 새로운 역사적 도시로 탄생시키려고 한 것이다. 조이스는 더블린 해체를 제국주의의 언어(영어)로 시도하고 있으나, 새로운 슬어들을 창조하는 등 제국주의 언어를 다양하게 전복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언어를 통한 식민지의 영구화에 반발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 기구나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이스에게 있어, 작품을 통해 식민지 저항 담론을 제시한 ‘글쓰기’가 곧 진정한 예술이며 동시에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주인으로서 현 아일랜드(더블린)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영국 제국주의와 카톨릭 교회의 횡포를 지적하고 있다. 즉 진정한 자아 정체성 추구의 주체인 더블린에 살아 숨쉬는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며, 현재와 미래를 향한 ‘생성의 역사’를 추구하고 있다.

(고려대)

인용 문헌

김의락. 『탈식민주의와 현대소설: 제3세계 문학과 영미 문학의 이해』. 자작아카데미, 1998.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1971.

_____. *Montesquieu, Rousseau, Marx*. London: Verso, 1972.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Ed. London: Routledge, 1997.

_____. *The Empire Writes Back*. London: Routledge, 1989.

Bakhtin, M. M. *The Dialogic Imagination*. Ed. Michael Holquist. Trans. Carly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Texas: U of Texas P, 1981.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Brydon, Diana. "Troppo Agitato: Reading and Writing Cultures in Randolph

- Stow's *Visitants* and Rudy Wiebe's *The Temptations of Big Bear*." *Ariel* 19(1), 1988.
- Cairns, David and Richards, Shaun. "What Ish My Nation?" *Writing Ireland: Colonialism, Nationalism and Culture*. Manchester: Manchester UP, 1988.
- Carter, Paul. *The Road to Botany Bay: An Essay in Spatial History*, London: Faber, 1987.
- Derrida, Jacques. "White Mythology: Metaphor in the Text of Philosophy." *NLH* 6, 1976.
- Eagleton, Terry. *Ideology: An Introduction*. London; New York: Verso, 1991.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London: Oxford UP, 1982.
- Gilman, Sander. *Difference and Pathology: Stereotypes of Sexuality, Race and Madness*, Ithaca: Cornell UP, 1985.
- Hutcheon, Linda. "Circling the Downspout of Empire: Post-colonialism and Postmodernism." *Ariel* 20(4), 1989.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1992.
- _____. *Ulysses*. Eds. Hans Walter Gabler et a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Macherey, Pierre.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Trans. Geoffrey Wal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 Marcuse, Herbert. *The Aesthetic Dimension: Toward a Critique of Marxist Aesthetic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9.
- Said, Edward W. *Culture and Imperialism*. London: Vintage, 1994.
- Slemon, Stephen. "Post-Colonial Allegory and the Transformation of History."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23(1), 1988.
- Tiffin, Helen. "Post-colonial Literatures and Counter-Discourse." *Kunapipi* 9(3), 1987.

Abstract

A Post-Colonial Rewriting of Dublin: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Jin-Hoon Park

Joyce regarded Ireland as a colonized nation where an individual's self-identity was distorted by Irishmen who representing English imperialism. In *Portrait*, Joyce described chiefly the Irishmen living the distorted lives: fathers, priests, nationalists, and etc. They who wouldn't admit the Otherness of others because of their own narrow-mindedness, corrupted articulations and actions. Through Stephen's resistance to the Irishmen's partial and wrong values, Joyce presented the escape out of the actualities of darkness, immatured infant land(Dublin) in many forms such as 'national allegory,' 'various new languages,' and 'many symbols' by the "new terminology."

In *Portrait* we can infer that Joyce intended to reveal the contradictory 'colonized situation's essences', and to get rid of Irishmen's distorted representations and ambivalence of English imperialists that were hidden beneath 'civilizing mission' and 'modernity'. Also, Joyce destroyed the myth of historical objectivity and the empty space of spacelessness and created a historical heterogeneity through the medium of a 'historical narrativity.' Through these subversions, Joyce newly named Dublin a new spatial historical city in an original fashion, and suggested a hopeful future without any restrictions and contaminated self-identity of imperialism and nationalism.

The issues of the place and language in the colonial resistance discourse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writer's political, cultural and literary intention. So,

Joyce's writing in English is not only to show the linguistic hybridity of a Post-colonial writer, but also to revolt against the British imperialism in favor of the colonized nation's literary authenticity.